

## 부서 단위 '팀확행' 최초 포상

- 팀워크를 발휘하여 정책성과를 보인 5개 부서를 선정, 최초 '팀확행'(팀 단위 확실한 적극행정) 포상 수여
- 3월 베스트 소확행으로는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에 기여한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박준석 사무관 선정

재정경제부는 4.9(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3월 팀확행 및 3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재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일상적인 업무에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한 소확행 포상을 시행한 데 이어, 3월부터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책성과를 보인 부서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팀확행 포상을 신설하였다.

금번 첫 팀확행 포상 부서로는 물가정책과, 공급망정책담당관, 전략투자지원과, 금융세제과, 외환제도과까지 총 5개 부서가 선정되었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위기 요인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민생물가·환율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부서에게 금번 신설된 팀확행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각 부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팀확행 포상 수상 부서 및 성과

	부서명	주요 성과
①	물가정책과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긴급대책을 통해 민생 물가 부담 완화에 노력
②	공급망정책담당관	중동 상황 대응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품목별 공급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 관리에 노력
③	전략투자지원과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
④	금융세제과	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 설계, 법령 입안, 상품 출시까지 전 과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
⑤	외환제도과	2026년 4월 일본 정부 및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최종 확정

구윤철 부총리는 팀확행 포상 외에도 3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경제구조 개혁총괄과 박준석 사무관을 선정·포상함으로써 직원 개인의 적극행정에 대한 격려 또한 잊지 않았다. 박 사무관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전국민 AI 한글화, 국가균형발전 연계 고등교육 개혁 등 아젠다의 발굴부터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소확행 제도는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매주 1건씩 현재(~4월 2주) 총 14호의 소확행이 선정되었으며, 그간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직원 개개인의 적극행정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높게 평가받는 계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3월 팀확행 및 3월 베스트 소확행 외에도 주간 소확행으로 선정된 모든 직원\*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하면서, 특별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포상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여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 (9호) 외환제도과 홍은표 주무관, (10호)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박준석 사무관, (11호) 산업관세과 김세리 주무관, (12호) 대외경제총괄과 김승환 사무관, 홍희경 주무관, (13호) 국유재산정책과 이돈구 사무관, (14호)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사무관, 경제교육정책팀 김령아 주무관 [☞참고]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의택 (044-215-2530)
	혁신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이금석 (gslee0819@korea.kr)



< 3월 제9~12호 >

구분	선정 직원	소확행 사례
제9호	외환제도과 홍은표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거래법 유권해석 및 민원인 대응 등 까다롭고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li> <li>- 복잡한 민원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과거 회신사례 및 관련 조항을 정리하여 부서 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마련</li> <li>- 월 40~50건 넘는 유권해석 및 민원 요청에 대해 기한내 응답률을 높이고, 친절하고 면밀한 대응으로 민원 만족도 개선에 기여</li> </ul>
제10호	경제구조개혁총괄과 박준석 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개혁국이 직면한 다양한 정책 과제와 총괄과의 행정 대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li> <li>- 전국민 AI 한글화, 국가균형발전 연계 고등교육 개혁 등 핵심 아젠다 발굴에서 세부 계획 수립까지 적극 참여하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과제들이 반영되는데 기여</li> <li>- 한편,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조정 및 과제 정리에 매진하여 대책 발표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li> </ul>
제11호	산업관세과 김세리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3월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결정하는데 기여</li> <li>- 주요국에서 쟁점물품을 완제품(모니터)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23년부터 한국대표로 참석, 기술적 설명·외교적 협상 병행으로 다수 회원국의 지지 확보</li> <li>- 중동 전쟁 등 악조건 속에서도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설득으로 최종 표결(38:11)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고, 연간 약 120억원 관세 절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li> </ul>
제12호	대외경제총괄과 김승환 사무관 홍희경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총리 주재 재경부 첫 생중계(live) 행사와 재경관 대상 첫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li> <li>- KTV와 함께 재경관 혁신사례 토론회를 기획하고, 장소섭외, 백드롭 설치, 발표자 및 시나리오 준비 등 행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생중계 방영</li> <li>- 또한, 재경관 언론 간담회, 실국 설명회, 주재국 경제동향 발표 등을 진행하는 한편, 최신 국내 트렌드를 제공하는 등 재경관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li> </ul>

< 4월 제13·14호 >

구분	선정 직원	소확행 사례
제13호	국유재산정책과 이돈구 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분쟁조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심사·운영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li> <li>- 청구인, 피청구인을 따로 심의하던 '개별심사' 방식을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심주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사건별로 심사책임을 맡는 '주심위원' 지정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 제고</li> <li>- 변호사 없는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청구취지 등을 보완토록 적극 안내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기회 확대에 기여</li> </ul>
제14호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사무관, 경제교육정책팀 김령아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노조법 시행(3.10)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li> <li>- 첫 관계장관회의를 기획·개최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정책 방향 정립 및 제도 안착 기반 마련에 기여</li> <li>-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연휴를 반납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현장 불확실성 완화 및 제도 시행 안정화에 기여</li> </ul>